

<2부> 유기·생태농이 대안이다

⑦ 조사료

# 논에 사료용 작물 재배...전남 을 3864억 경제효과 기대

흔히들 축산농가에서는 '소가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료가 소를 먹는다'고 말한다. 그만큼 사료 값이 경중 뛰며 축산농가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지 한우값이 하락함에 따라 자칫 비싼 사료를 먹여 2년여를 애써 키우고도 손해보기가 십상이다.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사료로 많이 사용되는 옥수수의 경우 국제 곡물 작황이 저조한데다 원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수요 증가로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1당 옥수수 가격은 지난 2008년 207달러에서 2009년 148달러, 2010년 169달러, 2011년 2월 274달러, 2011년 6월 362달러로 2008년 대비 174%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옥수수·청보리·사료용벼 등 조사료(粗飼料) 수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사료비, 경영비의 70% 차지=전남도는 오는 2013년까지 재배면적 8만ha에 사료작물을 재배해 조사료 80만t을 생산,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 32%·생산량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조사료 생산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기지 조성·유통활성화·품질향상 및 홍보로 나뉘 ▲대단위 들녘단위 전용 생산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거점 농·축협 육성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확대 ▲조사료 전국 유통추진 ▲조사료 유통 농·축협 육성 ▲조사료 가공·경영체 조직화 ▲저수선 사일리지 생산 및 퇴·액비 살포 ▲조사료 우수성 홍보 및 순회교육 등을 추진한다.

도는 조사료 생산경영체를 2011년 390개, 2012년 500개, 2013년 1000개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농·축협의 조사료 생산·유통 참여는 2011년 축협(나주·해남·영광), 농협(장흥·안양·용산·영광·백수) 등 6개에서 2013년에는 15개로 늘어 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약면적 역시 2012년 5082ha에서 2013년 1만2000ha로 확대된다.

전남도는 조사료 경제효과(2012년 기준)로 ▲조사료 수입대체효과 1436억원 ▲경중농가 소득효과 1019억원 ▲생산비 절감효과(조사료:배합사료 급여비율) 1409억원 등 총 38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사료와 배합사료의 급여비율은 4:6에서 6:4로 개선하게 되면 소 1마리당 연간 26만 7000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과학원 연구결과 한우 거세우에 청보리를 먹일 경우 ▲사료효율증가 10% ▲1일 증체량



옥수수는 축산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조사료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논에 시험재배한 옥수수를 트랙터를 이용해 수확하고 있다.

## 농한기 경작시 벼보다 소득 높아 일거양득 내년까지 1만2천ha·생산체 1천개로 확대 소득기반 다양화 기여...친환경 축산 선도

(증체량) 4% ▲1등급 이상 출현율(10%)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 논은 땅에 경작작물을 심게 되면 직불금(ha당 경관작물 170만원·준경관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다 벼보다 소득이 높아 경중농가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벼의 경우 ha당 소득액(5.2t 생산)이 693만9000원인데 비해 옥수수는 ha당 소득액(45t 생산)이 698만8000원이다.

◇논에서도 사료용 옥수수 재배=한정된 땅에

서 사료작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0년 사료용 옥수수를 밭이 아닌 논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농가에 보급했다. 그동안 논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려면 습해(濕害)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졌으나, 연구진은 습해에 강한 '광평옥' 품종을 선발해 새로운 재배기술을 선보였다.

나아가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8월 사료용 옥수수를 논에 심어 1년에 2차례 수확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2기작 논 재배기술은 3월 하순에 옥묘해 8월상순에 1차 수확한 후 다시 7월 중·하순에 옥묘해 11월 상순에 2차 수확하는 체계이다. 시험재배 결과 10a당 연간 10t 이상의 조사료 생산이 가능해 한번 재배하는 것에 비해 70% 수확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축협 안명수 조합장은 "FTA 체결과 산지 한우가격 폭락,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조사료 이용 확대를 통한 원가 절감과 함께 고급육을 생산해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2년 1·4분기 가축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에서 사육되는 한·육우는 51만2445마리(3만1971가구), 젓소는 2만8286마리(355가구)이다. 광주에서 사육되는 한·육우는 7407마리(307가구), 젓소는 496마리(67가구)이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8월 사료용 옥수수를 논에 심어 1년에 2차례 수확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2기작 논 재배기술은 3월 하순에 옥묘해 8월상순에 1차 수확한 후 다시 7월 중·하순에 옥묘해 11월 상순에 2차 수확하는 체계이다. 시험재배 결과 10a당 연간 10t 이상의 조사료 생산이 가능해 한번 재배하는 것에 비해 70% 수확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상근 세종축산 대표

#### “농업 부산물 발효시켜 먹였더니 비용 절반 줄고 육질 개선 큰도움”

“사료만 먹여서는 육질개선이 안 되고 등급도 안 나옵니다. 수입 축산물이 몰입듯이 쏟아지는 FTA시대에 축산농가가 사는 길은 사료를 적게 먹이는 대신 등급을 좋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근(69·함평군 월아면 외치리) 세종축산 대표는 일반 사료만을 먹여 한우를 키우지 않는다. 대신 미강(쌀을 찌를 때 나오는 가장 고운 속겨)과 맥강(맥주를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 장박(장을 담고 남은 찌꺼기), 쌀겨, 사과·배 등 과일껍질, 팥이벗까지 다양하다.

김 대표는 이러한 7가지 농업 부산물 재료를 섞은 후 발효기를 이용해 12시간 발효시켜 자신만의 사료를 만들어 함께 먹인다. 특정 영양분이 부족해 발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골고루 먹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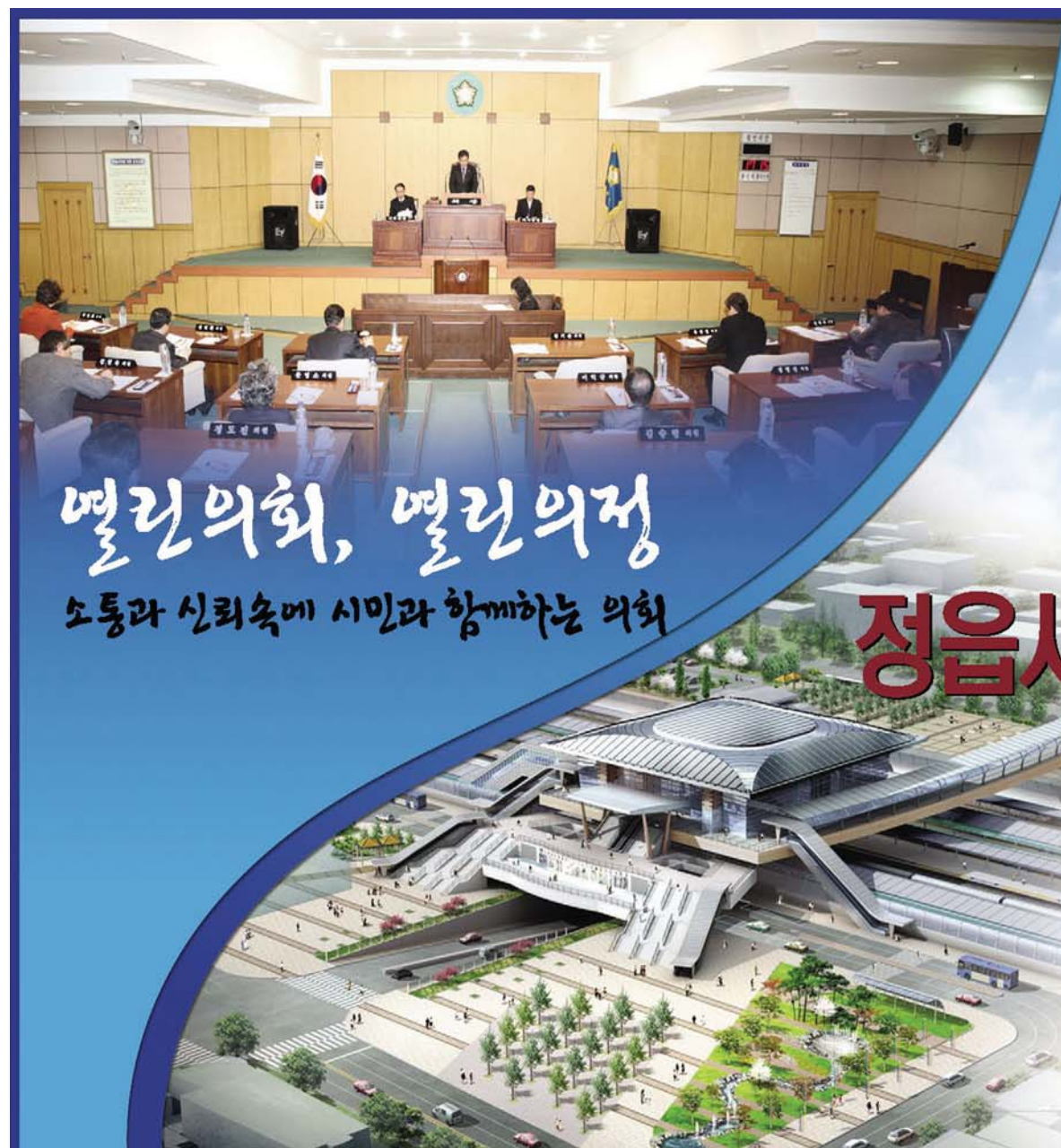
일반사료와 만든 발효사료의 비율은 4:6 정도. 축사 역시 냄새가 적고, 축분은 국화재배시 퇴비로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 1993년 축산업에 뛰어들 김 대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료비 부담을 일반 농가보다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A1에서 A\*\*까지 좋은 등급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한우 1마리가 하루 8kg의 사료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사료 값이 3500여원, 한 달이면 10만5600여원, 일년이면 126만 7000여원에 달한다. 한우 100마리를 키운다고 보면 한 달에만 1000만원의 사료비가 들어간다”며 “꼬박 2년을 기르더라도 최소 A1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우를 한대 300여 마리까지 키워지만 지금은 80여 마리로 규모를 줄였다. 더욱이 벗겨와 왕겨 등 농업 부산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찾는 농가들이 늘며 가격이 오르면 대기업에서 쌀겨로 식용유와 비누 등을 만들기 위해 사전예약을 해놓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부연설명이다.

김 대표는 “예식장에서 버려지는 맥주 등 주류(酒類)를 모아 축산농가에 제공한다면 사료비 절감과 육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시민에게 봉사하고 새 희망을 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정읍시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읍시민과 약속한 정읍역사 신축·지하차도 개설을 원안대로 시행하라!

별리의회, 별리의정  
소통과 신뢰속에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